

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15

사도행전 13-15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15회기,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의 설교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설의 몇 가지 특징을 실제로 살펴보고 그 중 일부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스테반의 연설의 경우처럼,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키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해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글로바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명에 대해 설명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분은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 성경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사명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 성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글썄요, 제 생각에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도행전의 일부 연설에서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샘플이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접근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서.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 그는 450년을 말한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숫자를 합산하는 경우입니다.

역사적으로 겹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는 그냥 본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는 고고학과 그 자신도 알지 못했던 모든 것을 모르는 문자적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은 성경을 응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누가복음-행전의 주제로 자주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처형한 장면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손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무나 주권적이어서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악으로 의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의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선을 위해 일하시는 그분의 방법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당시에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선을 위해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믿을만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정죄함으로써 성경의 말씀을 성취시켰으며, 특히 누가는 사도행전 8장에 다시 인용된 이사야 53장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편 22편과 69편과 같은 의로운 고난의 시편도 있습니다. 이 시편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3:33에서 그는 시편 2편과 7절을 인용하는데, 이는 누가복음 3장에서 이미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에서 암시되었을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당신을 낳았습니다.

즉위시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때때로 신성한 왕을 환영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법령이 있었습니다. 글썄,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을 신으로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왕이 하나님에 의해 즉위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는 이 시편을 열국이 복종할 궁극적인 왕이신 메시아의 즉위와 관련하여 적용했는데, 이것이 시편 2편의 내용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조는 특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3:34에서 그는 이사야 55:3을 인용하는데, 그 중 하나는 다윗의 자손에 관한 시편이기 때문에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장래 희망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4절을 인용하지 않고 이사야 55장 4절을 인용하는데, 이는 의심할 바 없이 바울도 알았을 것이고 아마도 누가도 알았을 것이고 아마도 누가의 청중 중 일부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은 계속해서 이 장에서 곧 희망을 갖게 될 이방인들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35절부터 37절까지 계속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서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그는 유대인의 베세라 샤부아의 해석학적 원리에 따라 시편 16장 10절을 인용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공통 핵심 용어에 기초하여 본문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청중은 회당 강론에서 그 점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사도들의 메시지에서 일종의 연속성을 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약속의 대상이 결코 썩지 않을 것임을 보증합니다. 2장 25절에서 28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하기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적어도 요세푸스가 이야기한 1세기에 알려진 올바른 무덤이라고 생각되는 몇 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는 몇 개의 무덤이 있지만 어쨌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죽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다윗이 미래에 통치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사야의 언어로 말하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41에서 그는 하박국 1:5을 인용하고 경고합니다.

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맥상 하박국 1장 5절은 1장 6절에서 갈대아인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문맥상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하박국은 계속해서 어떻게 오직 의로운 남은 자만이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하박국 2:4). 여기서는 종말 심판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자신의 편지를 통해 그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의 메시지에 대한 요약은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하박국 1.5장에 관해 말할 때 그는 아마도 더 큰 문맥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그는 그 맥락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42절과 4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의 말을 기쁘게 듣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회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일은 4세기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John Chrysostom은 이에 대해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 즉 회당에 참석하고 교회에도 참석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어떤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13시 44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한 회당에 모두 들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

회당 바로 앞에 모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마을 전체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글썄요, 예를 들어 1세기 말, 2세기 초에 유명한 연설가인 디오 크리소스툼(Dio Chrysostom)이 도시에 오면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당의 새로운 연사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는 철학자들이 관심을 두는 종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용어로 위대한 수사학자이자 연설가 또는 위대한 철학자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주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윤리적인 문제 등도 이야기했습니다. 종교는 주로 윤리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의 의식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1347년에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합니다. 글썄요, 이사야서의 문맥에서의 종은 49장 3절과 4절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49장 5절부터 7장까지에서는 사도행전 8장에서 본 것처럼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에서처럼 종의 사명을 수행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고난을 받는 분이시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의 더 큰 사명을 고려하면 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종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안에 사명을 완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적절한 사명이고 이스라엘 내의 의로운 남은 자들을 위한 적절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되었는데, 그곳에서 좋은 소식이 땅 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존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빛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믿는 자들,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이시며 열방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13:48, 49,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생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말을 듣는 일부 유대인 청중들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사야 49장 6절에 열방을 향한 빛과 함께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바울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 중 일부가 이 시점에서 그에 대해 더욱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3:50에는 많은 저명한 여성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처럼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 유대인 공동체가 사도들을 반대하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 저명한 여성들은 귀족에 속합니다.

지역 귀족은 공동체에서 대부분의 정치적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로부터 decurions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도시를 통제할 지방 의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귀족들의 반대가 누군가를 도시 밖으로 몰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순전히 지역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다음 마을로 갔습니다. 그들이 이전 마을 사람들인 당신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들의 관할권 범위에서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13:51과 52에서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울에게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글썄, 우리는 바울이 그의 교회에서 그리고 아마도 여행 중에 바나바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나바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마치 이 지방 교회에 있는 그의 청중들이 바나바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바울은 이전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13:51과 52에서 이고니온은 같은 길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세바스트 가도를 따라 동쪽으로 약 85마일(13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지형은 험난했습니다. 이 길 외에는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 시점에서 이 길을 택했다는 것을 압니다.

약 4일간의 산책이었으며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지로 돌아갈 때, 때로는 성전에 들어갈 때 발에 묻은 더러운 먼지를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갈릴리 동네 곧 하나님의 백성의 동네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 버리라.

마치 불경스러운 것처럼 취급하십시오. 이방인을 대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대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 갈릴리 마을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곳은 더러운 땅이라며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냅니다. 사람에게 발꿈치를 보여주는 것도 고대 중동에서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것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일 동안 걸어서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고니온에서의 그들의 사역에 대해 읽습니다(14:1-4). 그들은 프리기아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글썄, 다시 말하면, 당시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발음하면 프리기아(Phrygia)였지만 우리는 프리기아(Phrygia)라고 말합니다.

프리지아 방언을 사용했지만 그리스어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제2외국어였을 것이다. 바울은 필요할 때 통역사를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14:11과 14에서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통역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프랑스어 통역사가 언제 실수를 하는지 알고 있으며, 나는 대개 그 실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우사어 통역사가 실수를 할 때, 그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겁에 질려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통역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영어를 아는 맨 앞줄의 누군가가 통역사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은 왔다갔다 하면서 '아, 이 단어구나'라고 말하더군요. 이 단어는 항상 영어든 하우사어로든 다른 단어와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모두가 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통역사를 이용했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말한다면 그들은 이해할 것이지만, 현지 프리기아 방언은 아마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들은 대부분의 지역과 동일한 범위의 지역 신들을 숭배했지만 특히 황제와 프리기아의 어머니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비록 독점적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고니온은 소아시아 기독교의 주요 중심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14장과 5절에서 시 행정관은 소란을 진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금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었고, 시 행정관들도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피아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부 사람들의 반대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누가 그 말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그 내용의 일부를 기록하는 맥락에 있기 때문에 누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루가오니아의 도시들, 14장 6절과 7절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루가오니아의 도시들. 이고니온은 문화적으로 프리기아에 속해 있었지만, 고대 작가들은 때때로 그것을 리가오니아에 포함시켰습니다.

루가오니아에는 리스트라와 데르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마다 경계를 다른 방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들은 달아났습니다.

재량은 때로 용기보다 더 나은 부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가능하다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명예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는 루스드라에서 14장 8절부터 20장 전반부까지 설교합니다.

리스트라는 이미 반세기 동안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은 지역 문화를 강조했고, 그것이 권위 있기 때문에 로마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시디아 안디옥의 자매 도시였습니다. 비록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 지역의 그리스 도시와는 별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더 그리스인으로 여겼던 도시는 지배적인 문화이자 동부 지중해의 도시 문화였습니다. 공개적인 설교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는 다른 지역 연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엘리트 철학자들은 종종 부유한 후원자들을 섬기거나 홀에서 강의했지만, 엘리트가 아닌 다른 철학자들은 단지 시장에서 설교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사람들이 시장에서 연설하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Diochris 시스템은 강의 시간을 교실에만 두는 철학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그가 이러한 유형의 철학적 이상을 일부 공유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때때로 그리스-로마 문화에 익숙한 철학적 주장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래요,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논란도 있었지만 반대자들이 촉발한 논란이 관심을 더했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홍보가 좋은 홍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한다면 적어도 당신의 작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작업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홍보가 좋은 홍보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14절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낫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나왔다. 그는 걸을 수 있습니다.

누가가 여기서 사용한 언어 중 일부는 누가가 사도행전 3장에서 그곳의 장애인을 위해 사용한 일부 언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은 그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방인 선교에 참여하시는 일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누가복음 8장이나 9장에 나오는 장애인의 치유와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사야 35장을 연상시키는 언어도 있습니다. 반면 복음서에서는 그것은 미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그런데 이사야서 35장에는 종말론적 복귀 때에 장애인들이 기뻐 뛰놀며 또 다른 치유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미래에 궁극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역사 속으로 침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동 중입니다.

글쎄요, 프리지아인들은 그것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에서 그의 백성에게로 역사를 깨뜨리는 종말론적

표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역 프리지아 전설의 관점에서 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프리기아에 있는 그들의 지역으로 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우커스와 빌레몬 부부 외에는 그들에게 후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우코스(Baucus)와 빌레몬(Pilemon)을 제외한 프리기아(Phrygia)의 나머지 지역은 홍수로 파괴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리케아인이고 부분적으로는 프리지아 문화인 이 리케아인들은 프리지아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기적의 일꾼들은 때때로 신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대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홍수 외에도 신을 대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데메테르는 일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롯인지 아브라함인지 모르고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토빗에 관한 유대인의 외경 이야기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를 신으로 받아들인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천사로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글썬요, 그들은 그분을 숭배하고 싶어합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은 프리지아 전통에서 바우코스와 필레몬,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대한 이러한 암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음, 이것은 단지 로마 작가인 오비디우스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Ovid는 그것을 프리지아와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Ovid는 이보다 훨씬 이전에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으로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나는 내 배경 때문에 그리스 신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아는 것보다 그것을 훨씬

더 잘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나는 바우코스과 빌레몬에 대한 암시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지역에서 여전히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지역에서 그들을 함께 숭배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올림픽의 메신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Iris 또는 Eris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헤르메스는 올림픽의 사자였습니다. 그는 더 위엄 있는 제우스를 대신하여 연설할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서 제우스는 훨씬 덜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와 소년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 대해 온갖 나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실제로 때때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화하고 제우스를 무언가의 상징으로 만듦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헤르메스는 신성한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헤르메스로 식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여깁니다. 희생 동물은 종종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화환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 있는 성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화환을 엮은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황소는 정말 비쌌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큰 희생이 될 것입니다. 리스트라의 시민들은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또한 전 지역의 시장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언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이해했을 것이지만 서로 현지 언어로 말했을 것입니다. 마치 저와 아내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들이 현지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 그녀 자신의 지역이라면, 그녀는 그 언어로 그들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영어로 말을 걸고, 프랑스어가 너무 복잡하지 않다면 때로는 프랑스어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1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배를 거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배를 거부합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왜 우리 자신의 능력과 거룩함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3장과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도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당시에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할 때 베드로는 존경을 거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주장한 시몬과 대조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12장, 22장, 23장에서 아그립바 1세가 신으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들이고 죽임을 당한 것과 대조됩니다. 글썄요, 바울은 실제로 성경적인 언어로 대답합니다. 아마도 그가 신학을 얻는 곳이 바로 그곳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아나톨리아 농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변증가들은 유대인들이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모순된다고 느꼈던 최고의 신에 관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사용했습니다. 철학자들이 항상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신에 대한 숭배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조각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그 조각상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바울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변증가들은 지역 가르침이나 이교 문화의 가르침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 최고는 자신의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 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 더 낮은 도덕 표준을 갖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우상 숭배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바울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프리기아는 이것이 여전히 일반적인 프리기아 맥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리카오니아에서도 프리기아 문화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비옥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다산을 제공하는 어머니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 자체가 최고신의 성품을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토아학파만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키케로학파도 그렇게 말했고, 특히 스토아학파는 이것과 관련이 있었고 그들은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철학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토아학파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 등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곤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청중은 14:15-17년에 나온 이 간략한 연설 요약에서 바울의 지혜와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다재다능함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글쎄, 그들이 유일신교를 설교하고 군중이 그들을 좋아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고대 역사 작품에서 폭도들이 그들의 의견을 매우 빨리 바꾼다는 것을 읽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 19장에는 거기 모인 군중 대부분이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바울과 관련된 일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대의 폭도들에 관해 여러 번 읽었습니다. 신을 부정하는 것은 불경건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마술사로 등장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신이 아니고 신은 없다고 말하고 명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숭배하지 말고 대신 마법사나 마술사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일부 유대인들이 안디옥, 즉 자매 도시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거의 100마일, 160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트라와 안디옥은 자매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군중을 선동했고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은 도시 폭도 폭력의 가장 흔한 형태였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고대 자료에서 이에 대해 자주 다시 읽습니다. 돌, 타일, 자갈은 고대 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타일은 지붕에서 찢어져 사람들에게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스테반의 경우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바울이 유일신교를 설교하고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20B절부터 28절까지의 작업을 통합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더베로 이동합니다. 이제 Derbe는 Via Sebast나 Augustus Highway에 없었습니다.

데르베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동쪽으로 약 60마일 또는 95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고, 아마도 비포장 도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약 3일간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리스어, 그리스어, 아마도 그리스 문화가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리스 폴리스나 그리스 도시로 간주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정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은 로마 식민지인 클라우디오 데르베(Claudio Derbe)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능한 한 멀리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폭도들이 그들을 따라갔거나 폭도 중 일부가 그들을 뒤쫓기 위해 그들을 100마일이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22에서는 그들이 전도했던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더베에서 전도하고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갑니다. 돌에 맞은 곳에서 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폭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폭도들의 폭력은 한 순간에 선동될 수 있으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약간의 분노가 식은 후에

돌아갈 것이고 아마도 다음 번에는 안디옥 시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되돌아가서 이것이 새 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이는 새 신자들이 이미 목격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삶에서 예시된 것입니다.

그들의 설교를 요약하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가치가 있는 분이시며,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극심한 고통의 기간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때때로 그것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말하지만 반드시 최종적으로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2절과 같이 그는 현재 피조물이 어떻게 신음하며 산고로 고통받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 기간을 메시아의 산고와 메시아 시대, 즉 새 창조의 산고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안도감과 기쁨이 있기 전에 고통이 있습니다. 비록 사도행전에는 이상적으로는 고난 중에도 기꺼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터툴리안, 실제로 일부 초기 기독교인들은 구전 전통에서 예수께서 하신 이와 같은 말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지방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합니다. 장로들은 도시와 마을을 다스리고 재판했습니다. 장로들은 또한 회당에 자리를 가질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마을에서 갖는 직분보다는 회당에서 종교적인 직분을 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에는 여러 명의 장로가 있을 것이며 그들은 개인이 아닌 평의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일반적으로 존경심을 요구했습니다. 누구든지 장로라면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4장처럼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디모데는 누구든지 그의 젊음을 업신여기지 말고 장로들이 그에게

안수하여 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자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확실히 신동인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스 동부에서는 게루시아에 많은 영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장로들로 구성된 클럽이었습니다. 사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대인 공동체가 장로들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임명합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꽤 최근의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일이 계속 작동하고 살아 있도록 어떤 종류의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1424년과 1425년, Atalia는 Perga를 쫓는 곳입니다. 아탈리아는 백내장 입구에 있는 팜필리아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들어온 곳이 바로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그들이 향해하는 곳임이 분명합니다. 14:26부터 14:28까지 디아스포라 유대교가 유대교를 장려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사과했고 사람들이 유대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개종자를 환영했지만 일치된 선교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 공동체는 이 소식을 전한 여행자들을 통해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은 돌아와서 자신의 본거지에 보고합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한 번 이상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디옥은 분명히 그들의 본거지입니다.

예루살렘보다 이방인 선교에 더 공감하는 기지이다. 그리고 그곳은 그보다 그들이 사역하게 될 에게해 지역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논란이 됩니다.

이제 그것은 갈라디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도 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인 남부 갈라디아를

언급했을 것입니다. 음, 예, 대부분의 사도행전 13장과 14장입니다. 음, 사도행전 14장입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들은 보통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일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단지 의로운 이방인이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의로운 이방인이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기본적인 계명만 지켰다면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보다 보수적인 견해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이스라엘의 일부, 곧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글썄, 이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회당에서 하듯이 그들을 환영했을 뿐이지만, 그들을 예수 믿는 동료 신자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동료 신자들이 갑자기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편지에서 자주 언급되는 디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울이 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디도는 안디옥 출신이었을 수도 있지만 갈라디아인들은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갈라디아 선교부 출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안디옥에서 바울과 동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매우 명쾌한 리더입니다.

그와 바나바는 이방인 가운데서 훌륭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Titus는 그들과 함께 가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갈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기독교 운동의 가장 보수적인 부분의 중심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끔 이런 일을 겪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파송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독교 운동에 대한 자신의 지역적 문화적 표현만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적 표현을 통해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때로는 당신 자신의 현지 표현이 다른 사람의 표현보다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을 수행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17장에서 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매일을 동일하게 여긴다. 그러나 중심이 되는 특정한 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수적인 문제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와 장로들은 15장 2절에 회당과 같은 교회는 지방 장로들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지역을 초월하는 역할을 더 많이 수행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자체에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성전 당국과 고국에서 온 사자들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 신자들도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부가 있다면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안디옥은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70년까지 교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15절 3절과 4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5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3절과 4절에서 관련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가운데서 행한 이 모든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해석과 모순되면 표징이 불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과 바리새인의 전통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바리새인들은 표징에 더 개방적이었을 것입니다. 내 말은, 그들은 이미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5절에서 불평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온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아그립바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41년에서 44년까지 유대에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하스몬 왕조, 마카베오 왕조의 후손인 유대인 왕이 있다는 것은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에 이르면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후 로마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이는 매우 친유대적이고 친유대적인 아그립바 1세의 통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 민족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특정 종류의 문화적 문제로 인해 반동적이거나, 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양극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종종 교회는 그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집단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덜 보수적인 집단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충돌을 가져오는데, 특히 한 문화권의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문화권의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게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서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의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삼미파와 힐렐파가 있었습니다.

이제 Hillelites는 이방인에 대해 더 관대했지만 특히 70 이후에는 지배자가되었습니다. 70 이전에는 Shammites가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리새인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임스를 존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훼손하고 이방인과의 교제에 관하여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은 로마에 대항하는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실제로 이방인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불신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로마와의 전쟁이 실패한 이후에 일종의 불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경건함과 토라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존경을 받았고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21장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문화 내에서 좋은 증거였습니다. 1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반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이는 갈등 해결을 위한 일부 모델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특히 사도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변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공개 활동을 주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그래서 그는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다른 유대인 그룹들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총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 협의회도 별도로 열었습니다. 쿨란, 당신에게는 제사장과 장로와 백성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장로들 없이는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유대인 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 사이에서는 항상 다수의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도 이야기를 했고, 지도자 랍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별로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마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랍비들은 두 랍비가 토론하고 있었고 한 랍비가 대다수의 랍비들을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랍비. 그러자 하늘에서 다른 랍비가 옳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현자들이 통치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이라도 랍비들의 다수 의견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의견을 얻는 것은 유대인 집단, 적어도 바리새파 집단에서는 매우 중요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다르다면 변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에서 그들은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1512년부터 21년까지 제임스의 반응 사이에 제임스는 지역적으로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야고보가 매우 보수적인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고대 수사에서는 상대방이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좋은 수사 전략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Luke가 이에 대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15절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열국 중에서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음,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칭호가 이스라엘에 적용됩니다.

야고보는 이 말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17절에서 인용한 아모스서를 근거로 논증을 합니다. 그는 아모스 9장과 11절에서 다윗의 장막에 대해 말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해석의 전통 중 하나는 이것이 성전의 이상적인 형태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있었던 방식(대상 25장), 즉 예언적으로 영감되고 영감을 받은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글썬요, 저는 확실히 영에서 영감받은 송배를 믿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마도 이 본문의 의미가 그것보다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 성전의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모스 9장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황폐해졌던 다윗의 집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같은 세대의 이사야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루터기에 대하여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 가문은 통치에서 제외되었지만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재건이란 다윗의 계열이 끊어진 후에 메시아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해사본에도 메시아적으로 적용된다.

글쎄, 당신이 어떤 견해를 취하든, 회복은 분명히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5장 17절과 18절, 아모스 9장과 12절은 에돔의 남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에서 볼 수 있는 철자를 약간 변경함으로써 그것은 에돔의 남은 자에서 아담의 남은 자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님, 거기에는 그리스인들도 있고, 헬레니즘인들도 있고, 또한 이것은 그리스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아마도 이 칠십인역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칠십인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누가는 단지 그리스어 역본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청중도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맥상 평행법을 보면 에돔의 남은 자들도 열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에돔은 열국의 예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인류의 남은 자, 에돔의 남은 자, 곧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언어. 이제 이사야 19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와 스가랴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19장에서는 앓수르와 이집트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여질 수 있고, 믿음을 통해 언약에 접붙여지고 유대 왕이신 메시아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것은, 보세요, 우리는 순수하지 않은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음식의 십일조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의로운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기본 사항만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들이 개종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문제가 그날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편지에서 그것을 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던 일부 바리새인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통성, 즉 그들이 함께 사는 방식을 다루면서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합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피와 고기는 이방인들이 삼가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Noachide 법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7장과 18장에서 그 땅에 사는 나그네에게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글쎄요, 안디옥에서 그들은 그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관대한 입장은 의로운 이방인이라면 누구나 다가올 세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식탁 교제의 문제이다.

그리고 더 엄격한 바리새인들도 더 관대한 대다수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수의 견해를 무효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닐지 몰라도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령을 내립니다(15:22-35). 15:22에서는 나중에 랍비 학교에서 다수의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글쎄, 여기서는 부분적인 타협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타협은 안디옥 교회에 유리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교회, 특히 남자 교인들을 꽤 많이 축소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15시 23분에는 그 편지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다. 그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주목하세요. 이 편지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그리스어 편지 중 일부입니다.

야고보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건물을 짓기 위해 그곳에서 최고의 헬레니즘 유대인 몇 명을 고용하고 가능한 최고의 그리스어를 사용하여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존경심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는 인사말은 바울이 사용하는 은혜와 평안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고대 서신에서 사용된 표준 인사말입니다. 바울의 서신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것은 유대인의 요소들을 혼합한 좀 더 분명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인사는 표준이었고 그 다음에는 회람 편지였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자들이 여러 지역, 즉 공통 속주였던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복사하고 배포할 것입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편지의 사본을 갖고 있지 않고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내용을 인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5:28,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 같다고 말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글썄요, 그것은 또한 번역될 수도 있고, 또는 고대 법령이나 그리스 법령에서 그것이 해결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 법령에서 이는 시민 의회에서 투표한 후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 정말 좋은 소식이고, 이방인 선교에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이 걸작 직후, 이 연합이 실제로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누가가 요점을 지적하기에 충분할 만큼, 교회는 이 기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고보와 일부 지도자들은 여전히 이에 동의했지만, 교회가 점점 더 보수화됨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합을 본 직후에는 분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에 나오는 사역 동역의 핵심을 바로 공격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15회기,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